

생활에 있어서 깨어 있고 봉사에 있어서 신실함

5/26 월요일

아침의 누림

마 25:1-4

- 1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 2 그들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현명하였습니다.
- 3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 4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잠 20:27

27 사람의 영은 여호와와 동이라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롬 8:9, 16

-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빌 2:15-16

- 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 16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주십시오.

고후 11:2

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처녀들은 생명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고후 11:2). 왕국 백성인 믿는 이들은 순결한 처녀들과 같다. 처녀들로서 그들은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증거(등)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세상에서 나가고 있다. 이 일을 위해 그들에게는 성령의 내주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도 필요하다.

처녀가 되는 것은 일이나 봉사나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다. 더구나 우리는 다만 처녀일 뿐 아니라 정결하고 순수한 처녀이다. 처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 존재의 문제이다. ... 나는 비록 노인이지만 처녀같이 처신한다. 나는 결코 처녀인 내 신분을 팔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조차 나는 처녀이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4, 214-21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5 장 1 절에서 '등'은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롬 8:16)을 담는 믿는 이들의 영을 상징한다(잠 20:27).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빛을 비추어 낸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서 등불로서 빛을 비추며(마 5:14-16, 빌 2:15-16),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의 증거를 짊어진다. 이처럼 처녀들로서 우리는 전쟁을 위한 무기나 놀이를 위한 스포츠 기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나타내고 빛을 발하고 비추기 위한 등을 들고 있다.

마태복음 25 장 2 절은 "그들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현명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 다섯은 넷에 하나가 더해져 이루어진 수이며, 하나님(하나로 상징됨)이 더해진 사람(넷으로 상징됨)이 책임을 짊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 모든 믿는 이가 성령으로 충만될 책임이 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에만 기름을 가졌을 뿐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었다. 그들은 거둢나게 하시는 영에 더하여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영, 곧 여분의 성령을 갖고 있지 않았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그릇이고(롬 9:21, 23-24), 사람의 인격은 그의 혼에 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 장 4 절에서 '그릇'은 믿는 이들의 혼을 상징한다. 현명한 다섯 처녀는 그들의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릇에도 기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영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롬 8:9, 16),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적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등과 그릇에 관해 매우 분명해야 한다. ... 등 안에는 기름 곧 성령께서 계신다. 신약은 우리의 영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장소임을 계시한다. 로마서 9 장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들이다. 우리 존재 곧 우리 인격은 우리 혼 안에 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 장 4 절에서 그릇은 우리 혼을 상징한다. 거둢남에 의해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성령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등을 타오르게 만든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 혼을 채우는 여분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우리 등 안에 기름이 있더라도, 우리 혼 안에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영께서 반드시 우리 영에서부터 혼의 각 부분으로 확장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 혼 안에 여분의 성령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 여분이 있다면 우리는 현명한 것이다. 이 여분이 없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내적 충만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영께서 제 영안에 계시길 뿐만 아니라 제 혼 안에도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그 영의 내적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제 온 존재를 채우시는 여분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 깨어 있고 예비하고 있으려면 성령의 내적 충만이 필요하다. 즉 그 영 자신께서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되시는 것이 필요하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4, 215-21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3-64

5/27 화요일

아침의 누림

엡 5:17-19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19 이를 위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시를 읊고,

마 25:9

9 현명한 처녀들은 ‘우리과 여러분이 쓰기에 충분하지 못할 듯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계 3:18

18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속 4:6

6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골 3:16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딤후 3:16-17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17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 장 9 절은 이렇게 말한다. “현명한 처녀들은 ‘우리과 여러분이 쓰기에 충분하지 못할 듯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은 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내적 충만은 빌릴 수 없다. 이것은 먹는 것과 같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먹어 줄 수 없다.

성령의 충만을 얻으려면, 세상을 버리고, 자아를 처리하며,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부활한 후에라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분의 성령을 얻지 못한다. 결국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들의 마음과 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자아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4, 220-22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존재를 적실 만한 여분의 성령을 갖고 있느냐이다. 문제는 처녀들의 등에 있지 않았다. 심지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의 등에도 불이 타고 있었다. 그들의 등불이 ‘꺼져 간다’(마 25:8)는 사실은 그들의 등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 기름이 있었지만 충분한 공급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들의 그릇에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

마태복음 25 장 1 절부터 13 절까지의 문맥을 통해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채워져 있지 않다면 깨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엄중한 문제이다. ... 구원받은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 영으로 채워짐으로써 항상 깨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매일

우리의 등에 불이 타야 하고,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존재가 매일 여분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 영은 적시시는 영이시다. 우리는 이 영께서 우리 영 안에서부터 우리 온 존재를 적시시고 우리 혼에도 이르시도록, 심지어 우리 혼에 침투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두 신분을 가진다. 생명에 있어서는 처녀들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노예들이다.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깨어 있고 봉사에 있어서 신실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에 진지하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그 영으로 채워져야 한다.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의 영 안으로 오신 그 영은 거저 주어지셨다. 그러나 적시시는 영께서 우리의 온 존재, 특별히 우리의 혼을 채우시는 것은 거저 얻을 수 없다. 무언가를 사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죄인들이었던 우리는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고 주 예수님을 믿자마자 즉시 거듭났으며 그 영을 거저 받았다. 그러나 날마다 그 영께서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심으로 우리의 혼까지 침투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주님보다 침대를 사랑한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많은 것을 사랑한다. 그런 것들은 죄악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주님을 대치한다.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많은 것에 둔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떨쳐 버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자신을 준비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존재가 그 영으로 적셔졌는가? ... 우리는 살아 있는가? 채워져 있는가? 항상 깨어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매일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의 교통 안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전화하고 한담할 시간은 많을지도 모른다. 왜 기도하는 데 십 분도 들이지 않는가? 우리는 한 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하지만 기도하기 위한 오 분은 없을지도 모른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5 년, 5 권,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7 장, 600, 602-603, 60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5 년, 5 권,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7 장

5/28 수요일

아침의 누림

엡 4:30

30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살전 5:16-19

16 항상 기뻐하십시오.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19 그 영을 끄지 마십시오.

골 4:2

2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시 133:1-3

1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2 머리 위의 좋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

3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살전 5:25

25 형제님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엡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매일 아침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제가 이곳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채워 주십시오. 저를 적셔 주십시오. 저를 잠기게 해주십시오. 저는 당신 안에 잠기고 당신으로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 하루에 세 번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좋다. 사람들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그 누구도 너무 많이 호흡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의 호흡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훈련하여 더 많이, 더 깊이 호흡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릇 안에 기름을 얻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5 년, 5 권,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8 장, 612-61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4 장 30 절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분께서 실지로 우리와 하나로 합하셨기 때문에(고전 6:17), 우리가 슬프다는 것은 그분께서 슬프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집회에 오지 않거나 집회에 와도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그 영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집회에 와서 기능을 발휘할 때 기쁨을 느낀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슬프시게 한다는 표시이다. 우리는 왜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가? 그분을 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분은 기름이시다.

우리는 종종 그분을 슬프시게 할 뿐 아니라 그분을 끄기까지 한다(살전 5:19). 때로는 주님께 잠시만 참으시고 우리를 내버려두시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영을 끄는 것은 기름을 사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일에서 그 영을 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존재 안에 그 영을 더 많이 축적할 기회를 놓친다.

신약에 있는 거의 마지막 명령은 영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다(롬 8:4). 여기서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된 우리 사람의 영(비교 롬 8:16), 곧 우리의 연합된 영이다. 행하는 것은 '살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고 처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을 따라 처신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영을 사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말 곧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태도가 모두 영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영을 따라 처신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 영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고

처신하려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길게 통화하는 것을 멈추거나 신문을 읽을 때 첫 면에서 그다음 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멈추어야 할지도 모른다.

나의 부담은 여러분이 다른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일어나서 늘 여러분의 기름을 사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교통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느낀다면 그만두는 편이 낫다. 주님을 접촉하고 기도하는 데 그 시간을 사용하라. 이것이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는 것이다. 깨어 있는 것은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낭비하지 않고 모든 시간을 기름을 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기름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아끼는 최상의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날들은 짧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매일 심지어 매시간 기름을 사는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옷을 입고 쇼핑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모든 방식에서 기름을 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에 진지할 뿐 아니라, 마태복음 25 장 1 절부터 13 절까지에서 주 예수님께서 주신 엄중한 비유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일찍 휴거되어 결혼 잔치에 들어가느냐는 이 시각부터 매일 그 영을 사는 것에 달려 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일생의 문제이다. ... 주님께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항상 대가를 지불하여 기름을 사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5 년, 5 권,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9 장, 638-639, 641-64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5 년, 5 권,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8 장

5/29 목요일

아침의 누림

마 25:14-15

14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15 그가 노예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롬 12:6-8

6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언하십시오.

7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8 권유하는 사람이면 그 권유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단순하게,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

고전 12:4

4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영은 한 분이십니다.

벤전 4:10

10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이 달란트 비유(마 25:14-30)도 열 처녀 비유와 같이 천국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타국 곧 하늘들로 가려고 하셨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마태복음 25 장 14 절은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노예들에게 맡겼다고 말한다. 노예들은 봉사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고전 7:22-23, 벧후 1:1, 약 1:1, 롬 1:1). ... 그리스도와 관련된 믿는 이들의 신분에는 두 방면이 있다. 그들은 생명에 있어서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 처녀들이고, 봉사 곧 일에 있어서는 그분을 섬기도록 그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노예들이다.

나는 노예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소유에 복음, 진리, 믿는 이들, 교회 등이 포함된다고 믿는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유업 즉 하나님의 소유이다(엡 1:18). 마태복음 24 장 45 절은 믿는 이들이 또한 그분의 집안 식구들임을 지적하고 있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5, 22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영적 은사들을 상징한다(롬 12:6, 고전 12:4, 벧전 4:10, 딤후 1:6). ... 생명을 위해 그영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봉사를 위해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봉사를 위한 영적인 은사는 생명을 위해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 이중 신분이 있다. 이 이중 신분 중 첫째 방면은 생명과 관련이 있고, 둘째 방면은 봉사와 관련이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두 방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생명 방면과 봉사 방면에서 모두 합당해야 한다.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는 처녀들이고, 봉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노예들이다. 이것은 깨어 있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처녀들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와 관계있다. 그러나 신실함과

관련해서 우리는 노예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와 관계있다.

우리는 '처녀들'이라는 용어는 좋아하지만, 우리가 노예들이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녀들일 뿐 아니라 노예들이다. 처녀들에게 주님은 신랑이시지만, 노예들에게 그분은 주인이시다. 이와 같이 우리만 이중 신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도 이중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 한편으로 그분은 사람을 즐겁게 하시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엄격한 주인이시다. 때로 그분은 우리를 매우 즐겁게 해 주시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를 엄격하게 대하신다.

처녀들에게는 내적인 것, 즉 그릇 안에 기름을 내적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예들에게는 외적인 것, 즉 영적인 달란트가 필요하다. 성령의 내적 충만은 내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은사인 달란트는 외적인 것이다. 그릇인 우리에게는 내적으로 기름이 필요하고, 노예인 우리에게는 외적으로 달란트가 필요하다.

그릇에 기름을 담을 때 맨 밑바닥부터 채워지기 시작한다.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안에서부터 일어나며, 변화되는 것도 바로 안에서부터 일어난다.

안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외적인 활동이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부지런히 장사해서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적인 새롭게 됨과 외적인 봉사,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행동이 모두 필요함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 원칙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생명의 방면에서 우리는 안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야 하고, 봉사의 방면에서 우리는

외적으로 매우 활동적이어야 한다. 때로 우리는 외적으로 너무나 활동적이어서 내적인 새롭게 됨을 소홀히 한다. 또 어떤 때에는 속생명에 너무 주의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호 7:8)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한 면은 숯처럼 타 버리고, 다른 면은 조금도 익지 않는다. 어느 면도 먹기에 좋지 않다. 우리는 뒤집은 전병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일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이 쉬다면,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5, 226-22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5-66

5/30 금요일

아침의 누림

마 24:45

45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전 14:31

31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전 14:1, 3

1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더욱이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신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3 그러나 신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요 21:17

17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고전 13:3-5, 8

3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5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8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언도 쓸모없게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도 그치고, 지식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봉사에 신실해야 하는가? ... 마태복음 24 장 45 절부터 51 절까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집안 식구들을 돌보라는 위임을 주셨다. 그분의 집안 식구들은 믿는 이들(엡 2:19), 즉 교회(딤후 3:15)를 가리킨다. 오늘

날 교회는 주님의 집이자 주님의 가족이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식구라고 말할 수 있다. ... 주님은 그분의 집안 식구들, 곧 교회 안의 믿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하라는 명령과 위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24 장 45 절에 따르면, 우리는 양식을 공급해야 한다. ... 우리는 생명 공급이 되는 양식을 제때에 주님의 백성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음식을 공급할 수 있지만 자신은 그런 은사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 주님의 모든 노예는 자신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은사를 받았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5 년, 5 권,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 실행하는 길, 8 장, 618 쪽)

오늘의 위를 말씀

주님은 하늘들로 가시기 전에, 모든 믿는 이로 이루어진 그분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 주님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는 그분의 소유이고 다른 하나는 달란트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믿는 이로 이루어진 교회를 우리의 소유와 몫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교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으며, 또한 교회를 위해 영적 은사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은사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실제로 많은 은사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항상 격려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나의 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기독교 전체를 보아도, 훌륭한 설교자들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실행만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는 집회를 본 적이 없다. 심지어 몇몇 사람은 이것을 ‘팝콘’ 집회라고 불렀다. 팝콘이 튀는 것처럼 사람들이 잇달아 일어난다. ... 우리는 전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고대한다. 이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다(고전 14:24, 26, 29-32). 우리 모두는 기능을 발휘하기를 배워야 한다. ... 그저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지 말라. ...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음식을 차리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가 제때인지를 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차린다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 아침 식사로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사 온다면 게으른 것이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와 같다면, 우리는 제때에 주인의 식구들에게 합당하게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노예들이다. 우리는 정해진 아침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한다. 또한 좋은 아내는 남편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직장에 가져갈 훌륭한 도시락을 제때에 준비해 주고 온 가족을 위해 풍성한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데 익숙하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든 시간은 주님의 식구들에게 합당한 음식을 공급해야 하는 제때, 곧 정해진 때이다. 그러나 내가 게을러서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하자. 내가 말씀에 합당하게 수고하지 않은 채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단지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면 근면해야 한다. 이 비유의 문맥에 따르면, 신실한 사람은 근면한 사람이다. 여기서 신실함은 근면함과 일치하고, 불성실함은 게으름과 일치한다. 우리는 집회에 올 때 훌륭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추구해야 한다. 식사 시간이 제때이고, 집회 시간이 제때이다. 주일 아침과 저녁마다,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에게 제때가 온다. 집회 시간이 바로 제때이다. 그 시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소유, 곧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인 교회를 주셨고, 또한 우리의 의무를 위해

능력과 재주와 은사를 주셨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5 년, 5 권,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8 장, 617-61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5 년, 5 권,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8-9 장

5/31 토요일

아침의 누림

마 24:48-49

48 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라고 하며,

49 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마 25:18-19

18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19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는데,

고전 15:10, 58

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살전 5:12-14

12 형제님들, 우리가 또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13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사이에서도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14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 또 권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제때에 주님의 백성을 먹이고(마 24:45), 주님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완전히 사용해야 한다(25:20, 22). ... 우리는 동료 노예들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마 24:49). ... 나의 유일한 부담은 메시지를 해방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도 폭로할 의도가 없지만, 많은 사람이 내가 전한 메시지에 의해 빛 비춤을 받고 폭로되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 우리는 주님의 권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 긍정적인 봉사를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5 년, 5 권,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10 장, 648-64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더욱이 우리는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지’(마 24:49) 말아야 한다. 이것은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보다 더욱 떠내려가고 하락한 것이다. ...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 있고 심지어 마취되어 있다. 그들은 현시대에 의해 무감각해져 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는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땅을 파고 주님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지 말아야 한다(마 25:18).

땅은 세상을 상징하므로, 땅을 파는 것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세상과의 어떤 연합이나 연관, 심지어 세상적인 작은 말 한마디조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파묻게 할 것이다.

신실하게 되는 길은 배고픈 모든 사람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주님의 집안 식구는 믿는 이들뿐 아니라 죄인들로도 구성된다. 누가 배고픈 죄인들을 먹이러 갈 것인가? 우리는 모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진리가 거의 없다.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주의하지 않거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변절의 시대에 주님은 그분의 공화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열어 주셨다. 많은 신성한 풍성이 인쇄되고 출판되었다. ... 왜 우리는 이 풍성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가? ... 이것은 주님의 백성을 먹이는 길 중 하나이다.

주님은 그분의 모든 노예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 모든 사람이 주님의 왕국을 위해 장사하여 이익을 남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제때에 그분의 백성을 먹여야 한다. 매일이 제때, 곧 식사 시간이다. ... 먹을 준비가 된 사람이 어디에나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다섯 달란트 받은 노예는 다섯 달란트의 이익을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노예는 두 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손실이나 낭비 없이 최대한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는 동일한 보상을 받았다.

또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동료 노예들인 동료 믿는 이들을 때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들에 대해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입은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해 내기 위해 지어졌다. 형제들을 비난하는 것이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이다. 그런 일을 행한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마취되고 술 취한 세상적인 사람들과 쾌락을 즐기러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깨어 있는 이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땅을 파고 자신의 달란트를 감추거나 묻어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그 직업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나의 손주들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라고 격려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단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교육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격려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 둘 구멍을 파지 말라. 우리 모두는 주님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5년, 5권,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의 실행하는 길, 10장, 649-650, 654-65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5년, 5권,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10장

6/1 주일

아침의 수련

벤전 4:7-11

7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맑은 생각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8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입니다.

9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10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11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습니다. 아멘.

시 133:1-3

1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2 머리 위의 좋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

3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추가로 읽을 말씀

: 위트니스 리 전집, 1985년, 5권,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10장